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026년 6월 8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성락 목사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14장 다 같 이
 기 도 조왕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9장 22-27절 인 도 자
 찬 양 아침을 여는 찬양 새벽찬양대
 설 교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는 은혜』 박성락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12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312장 -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 (2)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 (3)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 오늘의 말씀 < 여호수아 9장 22-27절 >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함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도 담당

6/9(화)	6/10(수)	6/11(목)	6/12(금)	6/13(토)	6/15(월)
김덕만 안수집사	강협수 안수집사	한상열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김두연1 안수집사	이범우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6월 8일(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함이 없으신 주의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40주년에는 온전한 헌당과 우리로 하나 되는 마음의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매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갈등과 전쟁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평화의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기쁨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